JFMSE, 26(6), pp. 1261~1277, 2014.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6권 제6호, 통권72호, 2014.
www.ksfme.or.kr
http://dx.doi.org/10.13000/JFMSE.2014.26.6.1261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 분석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

이은화 · 조용개* · 김난희†
(신라대학교 · *선문대학교 · †한림대학교)

A Study on the Analysis for Learning Difficulties of Foreign Students in University of South Korea

- Focusing on Chinese Foreign Students -

Eun-Hwa LEE · Yong-Gae CHO* · Nan-Hee KIM†
(Silla University · *Sunmoon University · †Hallym University)

Abstract

In recently,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re very active in lots of universities of South Korea. According to trend, foreign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Korea have increased steadily. The programs to support and help them for adaptation of the university and academic success are rising though, on account of language barrier, it seems not easy to adapt to those people who finished studying korean language training that roles incubator and entered their major. More over, to expect personal training for them by professors is also difficult because of short of educational or executive and bankroll support in reality. Therefore it became a social issue about managing foreign students of South Korea.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difficulties of learning from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view. For this, we analysed focus group interview which intended 16 chinese foreign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through reflective journal record using Nvivo program.

In the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 learning difficulties of chinese foreign students are itemized 4 sections of personal aspect, environmental aspect, educational contents' aspect and educational methodic aspect. It is subdivided 11 sections and identified of requirement for studying support corresponding each part of difficulties. This research finding will be able to expect to provide a suggestion to looking for options for learning support plan of chinese foreign students.

Key words : Chinese Foreign Students, Fucus Group Interview, Learning Difficulty in University

Ⅰ. 서 론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학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12년 4월 기준으로 8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많은 국내 대학들이 뛰어들었던 국제화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외국인 유학생 수급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급감할 학생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환영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

† Corresponding author : 010-3727-9686, nanikim55@hanmail.net

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급증 현상은 1997년 정부가 외국인의 정원 외 입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00년대에 들어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2001년)'과 이를 확대 · 보완한 'Study Korea Project(2004년)'을 수립한 데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Ahn Young-Jin 2008). 이어 'Study Korea Project'가 당초 목표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가 2007년에 조기 달성되면서, 2008년 8월에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 체류 유학생을 연간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의 급증에 발맞추어 이들의 적응을 돕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단일문화를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적응을 돕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자 가정의 부모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의 문제가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 각계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대학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학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이나 대학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은 아직까지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착을 위하여 동료학습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학생들을 위한 원어 강좌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혹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과목들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생활 전반에서부터 대학 학습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유학생 유치에 급급하다보니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습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학생들을 걸러내기 힘든 형편이어서 이들의 한국 대학에서의 학습의 어려움은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등록 후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취업현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No Jong-Hee et al. 2002; Joo Hyun-Jun 2007; Jang Gui-Kyung et al. 2010),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Na Im-Soon 2006; Kim Dae-Hyun et al. 2007; Kim Sun-Nam 2007; Ahn Young-Jin 2008; Park Eun-Gyoung & Kim Min-Il 2009; Lee Tai-Sik et al. 2009; Lim Ji-Hey & Cui Aheng-Hua 2009; Kim Sun-Ah 2010; Park Eun-Mi et al. 2010; Lee Che-Sik 2012), 셋째, 한국어 활용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관한 연구(Lee Hai-Young 2001; Lee Hyun-Sil & Hwang Dong-Ryul 2007; Kim Tea-Ja et al. 2008; Yang Soon-Woo 2009; Jang Mi-Young 2009; Park Yun-Ho 2011)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대학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Ahn Young-Jin(2008)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입국 전), 유학(정착 및 적응),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이동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Park Eun-Gyoung & Kim Min-Il(2009)은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배경과 현황을 조사하고 적응과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배경은 출신국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더 발전되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며, 개인적 요인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관심 전공분야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우수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주 후 한국생활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생활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보다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차별과 편견, 문화적 차이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적응과 한국어 활용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o Hyun-Jun 2007). 특히 그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을 한국어 능력과 교우관계를 꼽았다.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는 한국생활 및 학업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요소이며,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국동포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장 많으며, 한국인 대학생들과의 교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Sun-Ah 2010). 이는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의 교우 관계에서 서로 단절되어 분리된 경향을 보인다는 Jun Jae-Eun et al.(2012)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분석의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나 유학 이후 적응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 유학생이든 내국인 학생이든 학생으로서 겪게 되는 학습의 어려움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안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비교적 근접한 연구로 Yang Soon-Woo(2009)의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결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학업과 관련된 정보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의 과정에 대한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여러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국내 유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을 밝혀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 분포 중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중국 63.8%, 일본 4.7%, 몽골 4.4%, 미국 3.1%, 베트남 2.8%, 대만 1.7%, 기타 19.5%의 분포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중 80%에 가까운 비중을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점과,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높아진 해외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들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한국 대학의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인 유학생들의 학습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대학의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충주시 소재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구 참여자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은 학과의 교수에게 4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추천받았으며, 이들로부터 한국 대학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16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배경 정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s of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Name[1)]	Sex	Major	Grade	Age	Period of abroad
Ju	M	Mechanical Engineering	3	22	2 years
Lee	M	Mechanical Engineering	3	23	3 years
Yu	FM	Korean Language	M1	26	4 years 6 months
Ki	FM	Korean Language	M1	25	1 year 6 months
Jang	FM	Korean Language	M1	25	1 year 6 months
Wo	FM	Korean Language	M1	25	3 years
Seo	FM	International Relations	3	23	2 years 6 months
Lim	FM	International Relations	3	22	5 years
Ju	M	Industrial Design	3	21	6 months
Jang	FM	English Literary	3	22	6 months
Jang	FM	English Literary	3	21	6 months
Ju	M	Public Administration	3	21	2 years
Heo	FM	International Trade	3	24	1 year 6 months
Jang	M	International Trade	3	24	2 years
Jin	M	International Trade	2	25	4 years 6 months
Buem	\M	International Trade	3	23	3 years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에 기초하여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4단계의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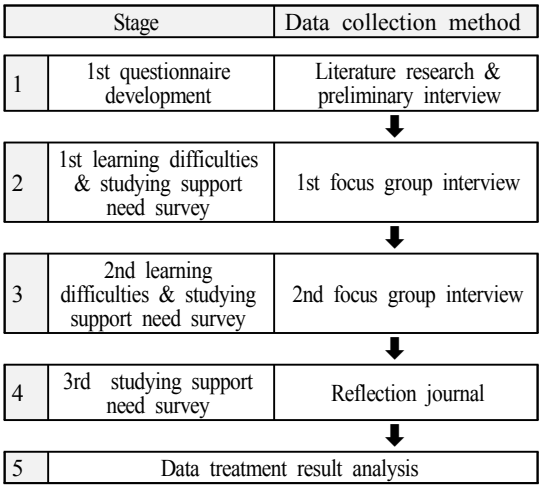
1단계는 면담을 위한 1차 질문지 개발 단계로, 질문지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질문을 추출한 후, 예비면담을 통하여 질문지를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예비면담은 2010년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면담의 조사내용은 한국과 출신국의 학습과정의 차이, 한국 대학에서의 학습의 어려움, 한국 대학에서 바라는 학습지원 요구에 관한 것 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2단계는 1차 학습지원 요구조사 단계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발된 질문지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2010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면담의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의 전체 과정은 mp3로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3단계는 2차 학습지원 요구조사 단계로 2차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1차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추려내어 작성된 질문지에 따라 이루어졌다. 2차 면담의 조사 내용은 첫째, 생애사적 이해-한국 대

1) 학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성만 표기하였음.

학의 수업에 대한 경험, 둘째, 현재의 생생한 이해-한국 대학 수업의 실제, 셋째, 의미와 반성-한국 대학 수업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면담은 2010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사된 자료는 모두 A4용지 87쪽의 분량이었다.



[Fig. 1] Research procedure and method

4단계는 3차 학습지원 요구조사 단계이며 포커스 그룹 면담자를 대상으로 성찰 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의 장벽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전원에 대하여 에세이 형식으로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에 관해 작성하게 하였다. 에세이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처음 유학을 왔을 당시와 현재 비교,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회상, 한국 대학의 수업에서 달라지기를 바라는 점(예: 수업방식, 태도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과 학습지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Nvivo10 프로그램을 이용한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인 Nvivo 프로그램은 전사된 텍스트 자료를 각각의 Node에 코딩이 된 문장, 글 등을 프로그램 안에서 분류화시킴으로써 방대한 양의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Park Jong-Won 2007)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의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및 2차 포커스 집단 면담 녹취 자료 및 성찰저널의 전사 기록을 주요 단어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류체계 분석 결과를 대주제와 소주제로 범주화하고 주요 주제 범주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주제 및 소주제 범주의 주제들 간 상호관련성을 찾아 개념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Tree 구조를 작성하였다. 넷째, 포커스 그룹 면담 전사 자료와 연구참여자 성찰 저널을 읽고 빠진 주요 단어나 아이디어를 다시 찾아 범주화하고 주제 간의 상호관련성을 재검토하여 Tree 구조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과정은 개방코딩을 통해 총 45개의 개념(개방코딩)이 나타났으며, 이 개념들을 위계에 따라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11개의 하위 범주(축코딩)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4개의 범주(선택코딩)로 재분류하였다.

4. 연구의 타당화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의 신뢰도와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Kim Young-Chun (1998)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 준거를 참고로 다음의 두 가지 활동을 지침으로 삼았다. 첫째, 코딩 및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

기 위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에 대해 괄호 치기를 통하여 현상의 본질을 그 현상에 즉해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질적 연구 전문가 3인과 포커스 그룹 면담 참여자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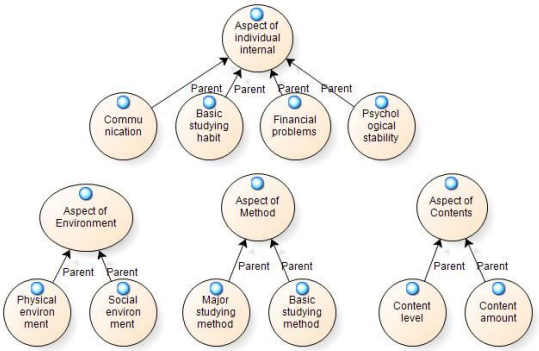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과 그에 기초한 학습지원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와 성찰저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포커스 그룹 면담 및 에세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은 총 45개의 개념(개방코딩)이 나타났고, 이 개념들을 위계에 따라 분류하고 재구성한 결과, 11개의 하위 범주(축코딩)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선택코딩의 결과를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4개의 범주(선택코딩)로 도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 유형을 축코딩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범주를 구분하고, 다시 유사 범주별로 묶어 상위 범주를 만들었다. 각 영역 및 범주별 코딩 빈도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2>와 같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Nvivo 10 node 생성을 활용하여 모형화하면 아래 [Fig. 2]와 같다.

1.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 중 첫 번째 영역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심리적 안정감의 결여, 기초학습습관



[Fig. 2] Learning difficulties of foreign students

의 미흡, 재정적 문제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 어려움을 모형화하면 아래 [Fig. 3]과 같다.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첫 번째 범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한국어 발음의 어려움, 말의 속도 빠름, 한국어 표현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배려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 중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를 나타낸 부분이 의사소통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발음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전달이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수업 시간의 교수의 강의를 이해하거나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면담자 : 왜 시사영어 수업이 어려웠나요?

유학생 :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들었어요.

면담자 : 수준이 높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학생 :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어려운 용어를 많이 섞어서 설명해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면담자 : 영어로 수업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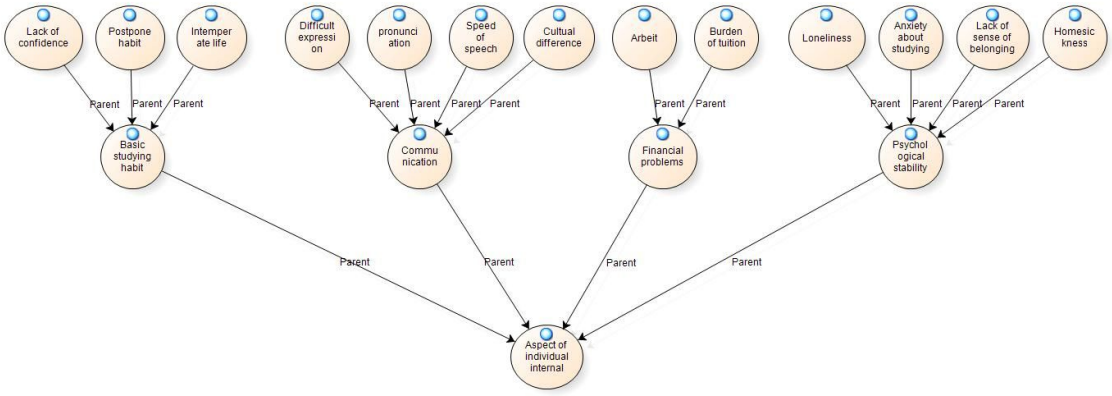
유학생 : 한국어로 영어 수업을 했는데 사투리도 쓰시는 거 같았어요. 기말고사 때는 외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주00,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Table 2> Coding frequency by category

Domain	Category		Open coding	Frequency			
				N	(%)	Number of Coding	Percentage (%)
Aspect of individual internal	Communication		pronunciation Speed of speech Difficult expression Cultual difference	40	16.06	104	41.77
	Psychological stability		Loneliness Lack of sense of belonging Homesickness Anxiety about studying abroad	29	11.65		
	Basic studying habit		Intemperate life Lack of confidence Postpone habit	30	12.05		
	Financial problems		Burden of tuition Arbeit	5	2.01		
Aspect of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Interaction between peer	Colleagues to ignore Less exchange opportunity with Korean friends Friends get help by subject	27	10.84	63	25.30
		Interaction with Instructor	Professor irritating Lecture provincial accent Nonchalant Professor Fast speed of speech Korean English pronunciation	19	7.63		
	Physical environment		Study place Place where spent time Utilization of system Registration method Curriculum understanding difficulties of taking courses	17	6.83		
Aspect of Contents	Content amount		Assignments Group assignments Amount of class progress	29	11.65	47	18.88
	Content level		English mix described Understanding about major terminology Lack of prior knowledge for major Burden about assignment presentation	18	7.23		
Aspect of Method	Basic studying method		Method for exams preparation Korean writing tips Computer proficiency Lack of data creation and editing technology	21	8.463	35	14.05
	Major studying method		Instruction without question Unilateral delivery instruction Feedback absence Ambiguous assessment Method for exam preparation Method for text utilization and arrangement Summary and arrangement about main points	14	5.62		
	Sum					249	100.00

이러한 결과는 Kim Ji-Hyung(2010)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매우 유사한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한국어 능력을 꼽은 바 있다. 최소한의 수학을 위한 한국어 기본 능력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



[Fig. 3] Aspect of individual internal learning difficulties of foreign students

한 듣기 능력이며, 둘째는 교재 해독을 위한 읽기 능력, 셋째는 강의 내용 요약, 과제 해결 및 평가 등의 학습자 활동을 위한 쓰기 능력, 넷째는 발표 및 토론을 위한 말하기 능력이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학습의 어려움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현지어 구사능력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의 핵심적인 전제 요소임을 확인한 것으로, 이미 여러 연구들(Kim Young-Sung 2006; Park Eun-Gyoung & Kim Min-Il 2009)에서 보고된 바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특히 Park Eun-Gyoung & Kim Min-Il(2009)의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및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의사소통의 문제로 꼽은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요소들과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학습 지원은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학습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학습자의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두 번째 범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꼽을 수 있었는데, 모국과 가족을 떠나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수업의 장면에서 과제나 시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설명해줄만한 정보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낮은 성적으로 인한 학업 결과에 대한 회의도 이후 학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학생1 : 매일매일 게임했어요.

면담자 : 컴퓨터 게임을 안 할 때는 괴롭겠다. 자기가 여기 왜 왔나... 생각할 것 아니야?

유학생1 : 처음에 왔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점점...

유학생2 :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수업시간에 설명도 못 알아듣고... 과제가 뭔지 알지도 못해서 못하고... 점수도 나쁘고 하니까...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면담자 :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 피하는거?

유학생1 : 네.

(유OO, 한국어교육과, 석사1학년)

학습자의 개인 내적 측면의 세 번째 범주는 기초학습습관의 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고립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자기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 : 공부하기는 어때요?

유학생 : 너무 힘들어요~

면담자 :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유학생 : 한국어 강의하게 되면 ... 못 알아들어요.

면담자 : 필기는 열심히 하나요?

유학생 : 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면담자 : 주로 수학 문제 푸는게 많지 않아요?

유학생 : 예 수학문제 많아요 물리문제.. 수학문제..

면담자 : 시험칠 때는 어때요?

유학생 : 시험... 무얼 묻는 문제인지... 무얼 적으라는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면담자 :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유학생 : 그냥 아는 거 몽땅 다 적어요.

(주OO, 자동차기계공학과, 3학년)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학습이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교육과는 교육과정이나 전달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Kim Sun-Nam(2007)의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의 연구에서 국내 혹은 외국인 공통적으로 대학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와는 구별되는 노트 작성법, 리포트 작성법, 토의기법, 발표기법, 아이디어 조직화기법 등의 학습기술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학습자의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네 번째 범주는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업이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 : 한국에서 공부하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에서 반대 안하였는가요?

유학생 : 전에 여기 있던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유학생 : 등록금을 엄마한테 모두 받아서 의존하는게 죄송했어요. 조금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돈을 벌지 못했어요... 말을 이해 못하면 아르바이트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는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일도 못 구했어요. 1년 동안 집에서 생활비 받아서 사용했고요.. 나중에는 중국인 유학생 선배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서 한국어로 말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게 된 것 같아요.

면담자 : 아르바이트는 어떤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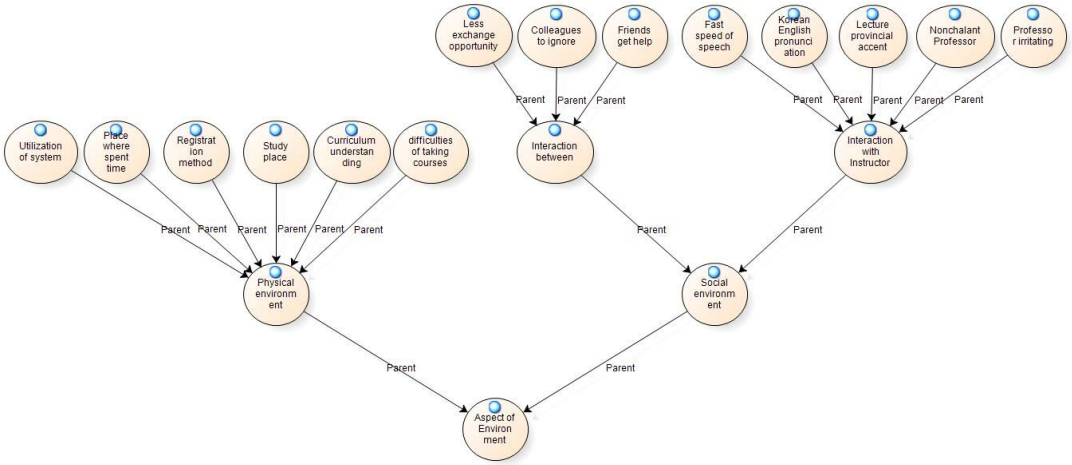
유학생 : 처음 말 못할 때는 호프집 서빙하고, 조금 말이 늘고 나서는 회사에서 1주일 3~4시간 근무, 중국이랑 무역하는 회사에서 중국어로 전화상담도 하고, 여행 쇼핑센터에서 주로 안내하거나 물건 판매를 했어요.

면담자 : 아르바이트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학생 : 좋은 점은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생활비를 번다는 것... 나쁜 점은 밤 늦게 일을 마치니까 아침에 수업을 자주 빠지게 되고... 피곤한거... 공부할 시간 없는거...

(임OO, 국제관계학과, 3학년)

재정적 문제가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의 경우에 특히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임은 기존 연구(Kim Sun-Nam 2007)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을 Jung Hyun-Wook(1996)의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에서도 약 53%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요인이 비단 중국인 유학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 비중을 감안하면 등록금 감면이나 별도의 유학생 장학금 재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한 학습 지원 요구일 것으로 판단되며, Na Im-Soon(200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Fig. 4] Learning difficulties of aspect of environment

2. 교육환경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의 두 번째 영역은 교육환경 측면으로, 인적 상호작용 및 물리적 환경 활용의 어려움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환경 측면의 학습 어려움을 모형화하면 아래 [Fig. 4]와 같다.

교육환경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중 인적 상호작용의 부족은 동료 간 상호작용 부족과 교수자와 상호작용 부족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동료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는 동료, 한국인 친구와의 교류 기회가 적음, 과목별 도움 받을 친구가 없음 등을 호소하였으며, 교수자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유학생을 귀찮아하는 교수, 강의 사투리 억양, 유학생에 관심 없는 교수, 말의 속도 빠름, 한국식 영어발음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우선, 선후배 혹은 동기 등의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타국에서 대학 경험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상호작용하게 되는 집단이다. 이들을 통해서 수업과 교수 등에 관한 정보를 편안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풍부한가 혹은 긴밀하게 도와주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면담자 : 기숙사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요?

유학생 : 일부 한국 학생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면담자 : 이유는요?

유학생 :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면담자 : 서로 알려주고 하면 좋을 텐데요.

유학생 : 왠지... 중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장OO, 영어영문학과, 3학년)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에 비하여 접촉 기회에 있어서도 매우 적으며, 기회가 있을 때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뜻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 : 학과 사무실이나 교수님께서 챙겨주시는가요 ?

유학생 : 아무도 안 챙겨주세요. 교수님은 수업 끝나면 우리랑 거의 만나지 않아요.

면담자 : 수업시간에만 교수님을 만나나요?

유학생 : 네. 한국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자주 찾아

가요. 중국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면담자 : 주로 시험정보나 수업시간에 나오는 과제나 지시나 안내사항은 듣고 이해가 되나요?

유학생 : 책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 말씀은 다 이해가 안 되요. 좀 힘들어요.

면담자 : 이해가 안 되는거는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텐데...

유학생 : 그거 알긴 아는데... 부끄러워서 못가요.

면담자 : 교수님을 자주 찾아뵈면 그래도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지 않을까요?

유학생 : 그렇긴 해요. 하지만 어려워서 만나면 숨고 피하고 그래요.

(기00, 한국어교육과, 석사1학년)

이러한 결과는 타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는 외국인의 적응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들(Yoo In-Jin 1999; Kim Mi-Ryung 2004; Keum Myung-Ja et al. 2004; Pakr Yun-Sook & Yoon In-Jin 200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료들 간이나 교수자와의 소통 부재가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에 따라, 동료 및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기회 확대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학습지원 요구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환경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중 두 번째 범주인 물리적 환경 활용의 어려움으로, 학교 시설물 활용법 어려움과 대학의 학사 관리 시스템 이해 부족 등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 활용의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부장소 부족, 시간 보내는 장소 부족, 학사시스템 활용 어려움, 수강신청방법 지도 부족, 대학 교육과정 이해 부족, 학기당 이수과목 과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도서관 혹은 교내 행정시설의 이용 방법 등의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대학 학사 시스템에 대한 활용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강신청에서부터 과제를 위한 도서관 활용 혹은 기타 문의를 위한 기타 기관 활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자 :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같이 수업 숙제 같은 거 의논하면 시끄럽잖아요?

유학생 : 아니요. 도서관 4층에 휴게실 있어요..

면담자 : 아~ 4층에 휴게실...

유학생 : 예 휴게실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면담자 : 언제부터 도서관에서 스터디를 했나요?

유학생 :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몰랐어요.. 수업 같이 듣는 한국 친구가 알려줬어요.

면담자 : 도서관 활용법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유학생 : 네. 도서관 교육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주00, 자동차기계공학과, 3학년)

유학생 : 우리들은 수강신청하는 거 잘 몰라요.. 설명 듣지 못했어요. 특히.. 필수과목 뭔지 선택과목 뭔지... 그런거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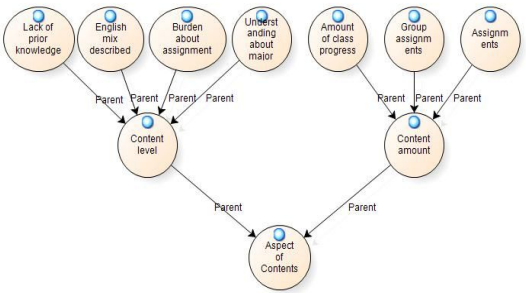
면담자 : 수강신청할 때 조교선생님이 지도해 주지 않았어요?

유학생 : 그냥 이거 이거 수강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꼭 공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수업에 들어가요.

(유00, 한국어교육과, 석사 1학년)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물리적 혹은 시스템적인 환경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식적인 교육 기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면담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안내를 공식적인 안내 절차를 거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연한 기회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Yang Soon-Woo 2009)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교수, 조교, 친구, 동료 등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뒷받침

된다. 이는 학교 환경에 대한 공식적 안내나 교육 이외에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Fig. 5] learning difficulties of aspect of contents

3 교육내용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 중 세 번째 영역은 교육내용 측면으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요인이다. 교육내용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의 첫 번째 범주는 교육내용 분량의 문제로, 구체적 내용은 과제물의 수, 조별 과제, 수업진도 분량이 많은 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범주는 교육내용의 수준의 문제로, 영어 혼용 설명, 전공 전문용어, 전공 선행지식 결여, 과제발표 부담 등이 교육내용 측면에서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주된 내용이었다. 교육내용 측면의 학습 어려움을 모형화하면 아래 [Fig. 5]와 같다.

먼저, 대학 수업에서 느끼는 교육내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과제 횟수가 과다하여 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으며, 장시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성과가 그에 미치지 않아 학습의욕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 :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는 잘 해가는 편인가요?

유학생1 : 교수님들마다 과제 너무 자주 내주세요. 교과서 내용 잘 이해 못하는데 과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면담자 : 고생한 만큼 학점도 좋겠어요.

유학생2 : 중국 학생들 좋은 성적 받지 못해요. 한국 학생들처럼 과제 잘 할 수 없어요.

면담자 : 왜 그럴까요?

유학생2 : 한국 학생들 공부 잘해요. 근데 중국 학생들 열심히 해도 잘 못해요. 교과서에 있는 전공 내용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유학생1 : 그러니까... 교과서 어려워서... 과제 그냥 해요..

면담자 : 그냥? 아! 대충한다고?

유학생1 : (웃으며) 네.

(허OO, 무역학과, 3학년, 진OO, 무역학과, 2학년)

면담자 : 과제가 얼마나 많지요? 대충... 한 과목에 한 학기 동안 몇 번 정도?

유학생 : 음... 교수님 따라 달라요.. 2개.. 3개? 어떤 수업은 수업 때 마다 과제 있어요.

면담자 : 그렇게 자주? 그걸 다 해가요?

유학생 : 아뇨. 다 못해요. 빠지는거 있고.. 잘 못해가는거 있어요.

면담자 : 그럴 때는 교수님이 뭐라 하세요?

유학생 : 그냥... 아무 말 안해요.

면담자 : 아..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하시니까... 다음에도 과제 안 해가기도 하고 그런건가?

유학생 : 중국 학생들... 잘 모르니까... 봐주시는 거 같아요.

(범OO, 무역학과, 3학년)

다음으로, 수업내용의 수준이 자신들이 이해하기에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학습의욕이 저하되거나 좌절감으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자 : 교수님 강의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요?

유학생 :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영어를 너무 많이 말해서... 한국말도 잘 이해 안가는데, 영어말 하면 더 어려워요.

면담자 : 아.. 전공용어 중에 영어로 된 거... 말하는구나?

유학생 : 네. 수업에서 설명 듣고, 책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면담자 :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유학생 : 말 안해요.

(장OO, 한국어교육전공, 석사1학년)

유학생 : 외래어가 많아요.

면담자 : 한국말 중에? 예를 들어.. 텔레비전 라디오 카메라 이런 외래어?

유학생 : 아뇨. 전문적인 용어 많이 있어요.

면담자 : 어떤 게 어려웠는지?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유학생 : 레포트 쓸 때...

면담자 : 응... 레포트 쓸 때?

유학생 : 그 요약하는게...요약하는거 우리 모르겠어요. 교재를 읽고 요약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요.

면담자 : 그럴 때는 어떻게 과제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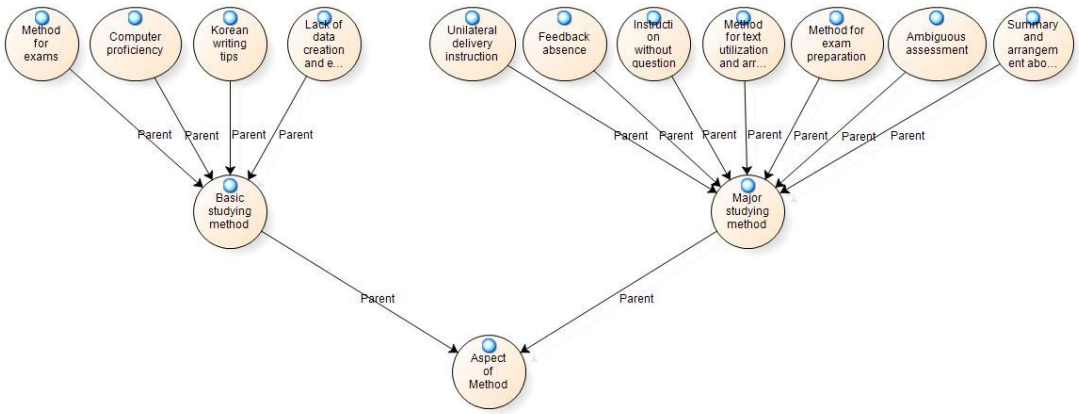
유학생 : 교재에 있는거 그냥 베꼈어요.

(유OO, 한국어교육전공, 석사1학년)

이러한 결과는 Ha Jung-Hee(2008)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일차적 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 또한 Lim Choon-Hee(2009)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겪는 교육적 스트레스는 학업의욕 저하나 중도탈락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와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 강화, 유학생과 한국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유학생을 위한 학생생활상담지원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으며(Lee Che-Sik 2012)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통해 유학생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들어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청강, 노트 필기, 과제 수행, 시험 준비 등을 도와줄 만한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의 연계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교육방법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학습의 어려움 중 네 번째 영역은 교육방법 측면의 어려움으로,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이나 교수자의 가르치는 방법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방법 측면의 학습 어려움을 모형화하면 아래 [Fig. 6]과 같다.



[Fig. 6] Learning difficulties of aspect of method

첫 번째 범주인 기초학습 방법 측면에서 시험 준비 방법 모름, 한국어 필기 요령 부족,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 자료제작 및 편집 기술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면담자 : 어떻게 힘들다고 그래요?

유학생1 : 공부하는 거 혼자 하는 것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간 학생들 많이 있어요.

유학생2 : 면담자 : 여기서 힘들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면담자 : 외로워서 그런가?

유학생2 : 아니 자기관리 부족해요

유학생1 : 네 그리고 또.. 시험 어떻게 쳐야하는지 알지 못해요. 한국어로 답 써야해서..

면담자 : 시험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가?

유학생1 : 아뇨. 조 과제할 때, 발표할 때, 자료 만드는거 힘들어요. 한국말로 발표하는거 힘들고요.

(중략)

면담자 : 내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어려웠는지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유학생 : 레포트 쓸 때...

면담자 : 응. 레포트 쓸 때

유학생 : 그 요약하는게...요약하는거 우리 모르겠어요

(서OO, 임OO, 국제관계학과, 3학년)

두 번째 범주인 전공학습법 측면에서 질문 없는 수업,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방식, 성취에 대한 피드백 부재, 모호한 평가, 시험준비 방법, 교재 활용 정리 방법, 핵심내용 요약 정리 기회 없음 등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 가운데에는 학업성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의응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 방식을 주요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 책 읽고 요약 자료 만드는거... 또.. 교수님 혼자 설명하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교수님 혼자서 설명하고 다음... 다음... 자꾸 넘어가는거...

면담자 : 아... 교수님 혼자서 진도를 나가시는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유학생 : 그러면 한국친구한테 물어봐요.

면담자 : 뭐라고 그랬니?

유학생 : 네.. 너무 어려워서 혼자 못해요.

(서OO, 임OO, 국제관계학과, 3학년)

이러한 결과는 Lim Choon-Hee(2009)의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내국인 중심의 수업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반면에 한국 대학수업에서 갖는 발표나 토론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쾌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면담자 : 교수법에서는요?

유학생 : 한국 교수님들께서는 중국 교수님들 보다 활기차게 수업하세요.

면담자 : 적응하기에는 어떤 방법이 더 쉽나요?

유학생 : 한국의 방법이 더 쉬워요.

면담자 : 한국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생 : 수업시간에 교수님들께서 자주 한문으로 칠판에 필기해 주세요.

(주OO, 행정학과, 3학년)

이처럼 한국 대학의 교수방법적인 측면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에 반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경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ee Ik-Soo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및 성취는 유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유학기간, 지출수준,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고, 문화적응도 학습동기 및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획일적 학습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유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이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한국 대학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16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과 성찰 저널 쓰기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내적 측면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의사소통(한국어 발음의 어려움, 말의 속도, 어려운 한국어 표현, 문화적 차이), 심리적 안정감(외로움, 소속감 부족, 향수, 유학 성과에 대한 불안), 기초학습습관(무절제한 생활, 자신감 결여, 미루는 습관), 재정적 문제(등록금 부담,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 등의 주요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환경적 측면은 학습자의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학습을 지원하는 주변 환경적 요인으로, 동료 간 상호작용(가난한 나라 무시하는 동료, 한국인 친구 교류 기회 적음, 과목별 도움 받을 친구 없음)과 교수자 상호작용(유학생을 귀찮아하는 교수, 강의 사투리 억양, 유학생에 관심 없는 교수, 말의 속도 빠름, 한국식 영어 발음) 등의 인적 환경 측면과 학교 물리적 환경(공부장소, 시간 보내는 장소, 학사시스템 활용, 수강신청방법, 교육과정 이해, 학기당 이수과목 과다) 등이 주요 범주로 포함될 수 있었다.

셋째,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교육내용 분량의 문제(과제물 분량, 조별과제의 어려움, 수업진도분량 과다)와 교육내용 수준의 문제(영어 혼용 설명 어려움, 전공 전문용어 이해 어려움, 전공 선행지식 결여, 과제발표 부담) 등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교육방법 측면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이나 교수자의 가르치는 방법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발생 요인으로, 기초학습방법(시험 준비 방법 모름, 한국어 필기 요령 부족, 컴퓨터 활용력 부족, 자료 제작 및 편집 기술 미흡)과 전공학습법(질문 없는 수업, 일방적 전달방식의 수업, 피드백 부재, 모호한 평가, 시험 준비 방법) 등이 주요 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에 토대로 한국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대학의 지원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여타 범주의 학습의 어려움에 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출발한 학습의 어려움이 결국 낮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이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됨을 확인한 데에 근거한다. 이러한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과 관련한 강습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스터디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교수학습센터의 튜터링 프로그램이나 그룹 스터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을 조력할만한 한국인 학생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의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 시 대학 내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개인 내적 측면의 학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센터의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및 학습법 특강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생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별 성격 혹은 진로 상담 프로그

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위해 대외협력기구, 기숙사, 한국어 교육센터, 외국인 유학생회와 긴밀한 접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야기된 학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활용 교육의 실시와 스터디 그룹 공간 지원을 위해 도서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스터디 그룹과 튜터링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지도교수 및 외국인 유학생 담당부서와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한국 대학 유학생의 관점에서 대학의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한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다 구체적인 국가별 학습자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의 어려움과 지원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hn, Young-Jin(2008). Trends and Geographical Patterns of International Student Migr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42(2), 223~236.

Ha, Jung-Hee(2008). A Qualitative Study on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Korean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0(2), 473~496.

Jang, Gui-Kyung · Hong, Seong-Heon & Moon, Seok-Hwan(2010). Chinese Students' Evaluations on the Education Service Quality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Korea Society of Decision Sciences, 18(1), 21~40.

Jang, Mi-Young(2009). Development and Composition of Korean Living Culture Education contents to Foreign Students, 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59~75.

Joo, Hyun-Jun(2007). A needs analysis for the strategies of 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 : A case study of S National University using AHP,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3), 83~106.

Jun, Jae-Eun · Jang, Na-young(2012). Nihao? Chinese students' relationships with Korean students: From Chinese students' experience and perspective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1), 303~326.

Jung, Hyun-Wook(1996). A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 From the socio-psychological point of view, ChonBu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0, 97~123.

Keum, Myung-Ja · Kweon, Hae-Soo & Lee, Hoi-woo(2004).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95~308.

Kim, Dae-Hyun · Kang, Ew-Ha & Kim, A-Young (2007). A study of Chinese students' adaptive experience in Korea, 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Educational Thought, 37, 1~12.

Kim, Ji-Hyung(2010). A Study of Sino-Korean word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1(1), 125~149.

Kim, Mi-Ryung(2004).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541~565.

Kim, Sun-Nam(2007). A Study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Chinese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9(1), 185~206.

Kim, Young-Chun(1998). Story of Elementary School, Seoul: Moonumsa.

Kim, Young-Sung(2006).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of the Koreans in Australia,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40(4), 497~512.

Kim. Sun-Ah(2010). The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7, 57~68.

Kim. Tea-ja · Min, Jee-Eun & Lee, Sang-Ho(2008). A Study on the user Education Program in Library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3, 1~17.

Lee, Che-Sik(2012).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Korea,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2), 121~140.

Lee, Hyun-Sil · Hwang, Dong-Ryul(2007). A Case Study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ourse for Foreign Student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 and Demand,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45~165.

Lee, Ik-soo · Jee, Bong-Koo(2006). A study on a Chinese student's adaption of college life,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29(5), 437~454.

Lee, Tai-Sik · Jun, Young-Joon · Zia Ud Din & Koo, Ja-Kyung(2009).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Conditions and Suggestions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y: Focused on International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2(1), 42~56.

Lee. Hai-Young(2001).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 The Design of Korean Language Teaching for Foreign University Student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 18(1), 279~301.

Lim, Choon-Hee(2009).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8(1), 93~112.

Lim, Ji-Hey · Cui, Aheng-Hua(2009).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media u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5(2), 183~206.

Na, Im-Soon(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5(2), 159~197.

No, Jong-Hee · Lee, Il-Yong & Yoo, Gil-Han(2002). The Marketing Strategies on the University Across Locations and Nations for 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ark, Eun-Gyoung · Kim, Min-Il(2009). Migration and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94~102.

Park, Eun-Mi · Huang, Bing-Yi & Jung, Tae-Yun (2010). Adjustment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from China to Academic Life in South Korea. Youth Counselling Research, 18(2), 205~223.

Park, Jong-Won(2012), NVivo 10 Essentials, Pukyung National University, Busan.

Park, Wan-Ho(2011). Chinese type the Korean language studying improvement program search of lifestyles. The Society for Chinese Humanities in Korea, 49, 201~230.

Park, Yun-Sook · Yoon, In-Jin(2007).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Adolescents and its Effects on their Adaptation in South Korea .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1(1), 124~156.

Yang, Soon-Woo(2009).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12, 17~36.

Yoo, In-Jin(1999). Social Adjustments of North Korea and New Approach to Settlement Support,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33, 511~549.

● 논문접수일 : 2014년 08월 2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9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3일